

삼성전자, 13년 연속 '전국기능경기대회' 후원

기술인재 육성·저변확대 중요성 알려

삼성전자가 '2019 부산광역시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기술인재 육성과 저변 확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대회를 13년 연속 대회를 후원해왔다.

올해에도 베스코에 '삼성기능올림픽 홍보관'을 운영하며 전국기능경기대회 후원 취지와 성과를 소개하고,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와 훈련 지원 등을 담은 영상도 상영한다.

11일 폐회식에서는 우수 선수 8명을 선별해 '삼성전자 후원상'도 시상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후원사로 13년째 참여했다.

/삼성전자

한편 올해 전국기능경기대회는 4일부터 11일까지 열리며, 메카트로닉스와 기계설

계 등 50개 직종에서 전국 1874명 선수가 출전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롯데주류 베트남서 '한국 문화 알리기' 행사

롯데주류가 한글날을 맞아 베트남 후에 시에서 한국문화 알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사단법인 비비비(BBB)코리아를 통해 롯데주류가 후원하고 후에 세종학당 주관으로 베트남 전국 12개 세종학당 학생이 한글날을 기념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 행사에서 한국어 글짓기 대회, 케이팝 경연 대회, 한-베 문화퀴즈, 캘리그라피 체험을 진행했다.

약 30여명이 참여한 한국어 글짓기 대회

는 초급부문은 '내가 한국어를 처음 만났을 때', 중·고급부문은 '처음 사랑하게 된 한국 문화'를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어휘력, 정확성, 구성 등의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해 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

한편 케이팝 커버 경연대회는 예선부터 21개팀이 참여해 케이팝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예선을 거쳐 선발된 8팀이 본선에 진출해 한국 춤과 노래 등을 선보였다. SNS 사전 점수, 표현력, 무대매너 등을 종합평가해 대



롯데주류가 지난 5일 베트남 '후에 세종학당'에서 한글날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롯데주류

상과 최우수상을 선정, 상금을 전달했다.

이 밖에도 롯데주류는 캘리그라피로 한국 전통 부채를 디자인해보는 전통문화 체험, 한-베 문화퀴즈 등도 함께 진행했다.

/백민웅 기자 parkiu7854@

오늘의 운세 10월 8일(금 9월 10일)



36년생 어린 사람과 다툼이 생기니 말조심. 48년생 모래 위에 쌓은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60년생 심신이 고달프니 휴식이 필요. 72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먼저 시작. 84년생 동료와 협업이 서로에게 이익이.



37년생 신세 진 사람이 빛을 갚으려온다. 49년생 운이 상승하는 날이니 미뤄둔 일을 처리. 61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73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 85년생 사랑타령은 시간낭비이며 우울.



38년생 더더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50년생 지인 관리를 잘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62년생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 74년생 가정의 화목이 최고의 행복이다. 86년생 업무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실천하라.



39년생 하늘도 파랗고 공기도 맑으니 기분도 상큼. 51년생 느긋하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63년생 일의 진행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 75년생 뒤통아서 부리워한다. 87년생 삶으면 떠나도록 가는 사람은 볼잡지 마라.



40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건 그리움이다. 52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말자. 64년생 장기투자는 심사숙고해서 결정. 76년생 망설이는 사이 기회는 날아간다. 88년생 결과부터 행기지 말고 계획을 잘 세워라.



41년생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다. 53년생 변화 속에 기회가 온다. 65년생 필요이상의 의미부여는 상황을 애곡시킨다. 77년생 타인의 시선에 얹매이지 마라. 89년생 근거 없는 칭찬에 마음이 봉 뜨지 말고 신중해야.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터뿌!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SUDOKU

	3	7		2	4			
			9					
6	7		8					
3				9	5			
2			6			3		
1	5		4			2		
4			6		7	8		
7		5						
5	9		1	3				

2	8		6		1		9	
			8	9				
7			5			3		
	8	3			1			
6				9	2			
1			4			5		
	6	5			9	2		
3	4		7		2	6		
2				6	7	8		

스도쿠 정답								
6	5	9	8	7	1	3	2	4
7	8	2	5	4	3	1	9	6
4	3	1	6	9	2	7	8	5
9	1	5	3	8	4	6	7	2
2	7	8	9	5	6	4	1	3
3	4	6	2	1	7	9	5	8
1	6	7	4	2	8	5	3	9
5	2	4	1	3	6	8	6	7
8	9	3	7	6	5	2	4	1

문제 제공= **한국일보**

은행, 지속성장에 주목해야



기자 수첩

홍 민 영
(파이낸스&마켓부)

리동향 등에 대한 정보가 한참 부족한 투자자들이 존재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인의 선택은 종종 생각지 못한 우를 범하기 쉽다. 더군다나 투자자 개인의 판단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가 느슨한 사모펀드의 형태를 빌려 많게는 하루에 5~6개로 상품을 조개고, 금리 하락기에 손실 배수를 키워 판매한 은행의 행태는 투자자에 대한 '눈속임'이 존재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지난 1일 DLF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진 금융 시장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나 투자손실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해당 투자 상품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일반 투자자보다 금융사 직원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지속가능 성장'이란 표현이 최근 경영계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다양한 고객층의 돈을 맡는 은행이 고객과 더불어 성장해 나갈 수 있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신뢰할 수 있을 리스크 관리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hong93@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비만과 오행 체질

"현대인은 평균적으로 영양 과다 상태입니다. 무얼 먹을까보다 무얼 먹지 않을까를 생각해야죠." 영양과 음식섭취에 관한 프로그램에서 어떤 의사가 하는 말이었다. 프로그램의 주제는 현대인의 과제로 떠오른 비만이었다. 곳곳에서 비만이 걱정이라는 소리가 쏟아지는 시대이다. 살찐 사람 중에는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진짜 그럴까. 오행(五行) 중 토(土)가 태과한 사람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토가 많은 사람은 소화력이 뛰어나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대로 몸으로 흡수하는 체질이 많다. 속병으로 인한 고생은 안 하겠지만 살이 잘 찌는 걱정을 항상 달고 살아야 한다. 식신(食神)이 과한 사주 역시 비만을 조심해야 한다. 식신은 말 그대로 먹을 게 많다는 것이다. 먹을 게 많으니 살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사주이다. 그런데 음식을 즐긴다는 게 합정처럼 도사리고 있다. 즐기는 건 좋은데 정도가 지나쳐서 문제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자제하지 못한다. 맛 집을 찾아다니는 걸 최고의 낙으로 삼고 식욕이 발동하면 폭식을 하기도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의 결과는 뻔하다. 감당 못 하게 살이 찬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비만이 특정한 체질이나 특정한 사주인 사람만의 문제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만은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질병이고 고민이 된 지 오래다. 비만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체질에 따른 식단관리를 해야 한다. 맛보다 속이 편한 음식으로 바꿔야 하고 담백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식사 습관을 달리하고 변화를 꾀해야 한다. 체질을 잘 알면 자기에게 알맞은 음식과 식습관을 찾으라는 것도 다들 아는 얘기이다. 실행에 옮기기도 어렵겠으나 그래도 해결하는 첫걸음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이 장 규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인 쇄 인
광고문의 / 독자센터	중앙일보(주)
일간 메트로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기00206 2002년5월28일 제4296호
	서울 기50111 2017년3월09일 제0400호